



## 인공수렵장時代

안 윤 식

(대한제당·무지개사료 영업부)

예나 지금이나 사냥(狩獵)의 즐거움과 스릴은 실제로 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실감키 어려운 세계가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어릴적 눈덮인 계곡에서 토끼몰이를 했다던가 수렵금지라 되기 이전(1960년대)에는 더러 공기총으로 참새 사냥이나 물오리사냥, 꿩사냥을 했던 경험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많은 산지가 개발되어 자연의 서식처는 줄어들고 동물들의 낙원이란 말은 듣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사냥"이라는 낭만적인 말은 어쩌면 옛날처럼 들릴 것도 같다. 그래도 아프리카의 정글시대, 광활한 美國의 초원지대에서는 수렵은 인기있는 스포츠겸 취미 오락으로서 널리 이루어진다고 한다.

동물이나 새를 쫓아 들과 계곡을 누비는 스릴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것임은 틀림없으리라.

꿩이나 물오리를 길러 일정한 時期가 되면 들에 풀어놓고 관객들에게 입장료를 받

고 총을 빌려준다. 그리고 이들은 안전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날아가는 물오리나 꿩을 멋지게 추락시키는 이른바 "有料 수렵장"이라는 것이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기르는 조류를 獵鳥라고 부른다. 즉 축산 기술자들의 사육에 의해 길러진 야생 조류물 말한다.

지금부터 20여년전부터 이러한 사업이 연구되어 왔으며 이미 그 실효를 거두어 태어난 수렵장이 미국내에는 여러곳 있다. 미국 윈체스터(Winchester)주 환경보호국에서는 윈체스터 100년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몇개 시범農場에서 꿩, 메추리, 물오리등 비교적 대량사육이 잘되고 인기도 있는 조류를 사육하여 수렵장을 개장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농장운영을 통하여 사냥을 할줄 모르는 이른바 사냥의 문외한인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간단히 오락 삼아 날으는 새를 겨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업에서 獵鳥사육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와 경영관리문제를 기업이 추진 하고 있는데, 미국내에서도 전통과 명성을 자랑 하는 축산기업이 사육기술과 사료를 제공 하고 이의 개발에 주력하여 오고 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냥터와 사냥조수라는데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언젠가는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축산의 한 형태를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꿩이나 물오리, 메추리 등을 사육하는 것은 축산의 분야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야생조류를 대량 사육하여 그 수요를 창조하는 것이 어찌면 축산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될 수도 있을것 이고 그것이 적소나 양계, 양돈에 못지 않게 수익이 있고 시장이 가능하다면 축산인 누구나 한번쯤 해보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될 것이다.

원래 꿩이나 공작등 야생조수를 사육하게 되는 동기는 장식용이나 식도락가 들의 식탁에 오르는 것이겠으나 이제는 없어져 가는 야생조수(Endangered Species) 와 수렵장 운영을 통한 레저산업의 한 분야가 될만큼 다양해 졌으니 이것도 특수한 축산의 한 분야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축산 법에서는 꿩, 오리, 사슴, 벌꿀 기타 야생 동물도 일단 대규모로 사육되는 것에 한하여는 가축으로 취급하여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지만 생태와 습성이 다른 이들을 가축과 똑같이 취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최근 미국, 일본, 구라파 등 고도산업선 진사회를 이룩한 나라에서는 개방된 동물원(이른바 싸파리스타일)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에 더하여 유료수렵장은 더 인기있는 업종으로 그 수가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설립취지는 “자연환경내에서의 양질의 수렵”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로인

한 운영상의 막대한 이익도 빼놓을수 없다 한다. 한 경제이론에 의하면 현대산업분야에 있어서 투자에 비하여 純益이 높은 순위는 3차산업 > 2차산업 > 1차산업순이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흥미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겠지만 어느 나라 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듯 하다.

유료수렵장 시대가 한국에도 올 수 있는 것인가? 경제적 여건과 국토적인 조건으로 봐서 가능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실제로 2~3년전부터 이의 설립을 위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를 허가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 주로 일본의 관광회사와 합자하여 설립하였고 수렵장로서는 비교적 장소가 넓고 관광지로서 유리한 제주도 지역에서 꿩을 사육하여 허가된 수렵지역에 사육하여 주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외화획득의 일환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들은바 있다. 당장 獵鳥를 사육하는 데서 오는 이익은 없을지라도 이는 한국 레저산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때 다소나마 고무적인 일인것 같다.

미국에서 獵鳥사육에 주력한 기업으로서 는 퓨리나(Purina)社가 있는데 미주리주 Gray Summit지방에 전속연구시험 농장을 세우고 매년 각종 가축 및 야생조수담수어에 이르기 까지 시험사육하고 있다. 특히 獵鳥로서는 메추리 2,000여수, 꿩 4,000여수 500여수의 야생물오리를 사육 시험하고 있어 이곳에서의 자료는 유료수렵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실정인 되겠다. 이곳에서 나온 “Purina game bird Program”(퓨리나 獵鳥사양 프로그램)은 메추리, 꿩, 오리 및 장식용 조류를 사육하고자 할때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일반가축과는 다소 습성이나 성질이 다른 조류를 어떻게 사육하는지 개략적인 현황을 살펴보자.

### (1) 꿩의 번식

야생상태에서 꿩은 보통 7~8월 경에 태어나서 한해 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봄부터 산란을 시작하는데 중국만주계통은 다산계로 8월까지 산란을 한다. 산란수는 6~10개가 고작이지만 사육하에 영양공급이 잘 되면 첫째 55~70개로 부터 산란 peak인 3년째는 연간 90~130개 까지 채란이 가능하니 이쯤되면 닭과 맞먹는 수, 무게는 계란보다 적어 꿩란은 35~37g 정도 특히 산란기에 충격 등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연중 거의 알은 낳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 점은 양계에서와는 달리 각별히 유념해야 할 점이라고 하겠다. 암, 수 합사비율은 송 1수당 우 3~4수가 적당하다고하며 최근에는 꿩이나 錦鷄 등 거의 가축화된 조류에서는 양계에서와 같이 인공수정도 가능해져서 암수 비율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부화도 자연부화 보다는 부화장에 의뢰하여 할 수 있는데, 첫째 종란의 보관은 16℃~18℃ 온도, 70~75%의 습도가 유지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되, 연구결과로서 낳은지 2주일 이상 경과된 알은 거의 부화되지 않고 일주일 이내에 부화기에 입란하여야 좋다고 한다.

### (2) 새끼꿩 수용 및 사육

부화된 새끼 꿩은 겹질을 깨고 나온 순간부터 무척 빠르고 활발하며, 한번 달아나기 시작하면 어쩌나 빠르니 잡기가 힘들 정도여서, 수용할 때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철저히 경비해야 한다.

야생에서 갓태어난 순간부터 적을 피해 쫓싸게 도망다니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량 사육시는 새끼 獵鳥가 좁은 면적에 많이 수용되면 곧 강자약식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충분한 수용면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1m<sup>2</sup> 넓이(0.3坪)방에 수용할 수 있는 새끼 獵鳥類 마리수

種類	生後 1~10일	10~ 6주	6주~14주
메추리	100首	60首	30首
평및 물오리	40首	10首	3首

꿩은 자라는 동안 점차 넓은 장소를 제공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류에 있어서는 방사되지 않는한 카니발리즘 (식우증)은 항상 문제거리가 된다. 이 증세가 나타나면 정상육은 자칫하면 순식간에 자멸하고 만다. 카니발리즘이 발생하는 원인은 영향하는 요인이 너무 많아서 그 대책이 여러 각도에서 행해져야되겠지만, 장식용인 경우는 주둥이(부리) 자르기를(De-beaking) 할 수도 없어, 충분한 영양 공급 및 대피장소 제공이 필요하게 된다. 운동장에는 나뭇가지 등을 보아 동산과 숲을 만들어서 유사시 피해 다닐 수 있도록하고 항상 적재 적소에 야채덩어리를 두어 쪼아 먹도록 해도된다. 요는 야생의 자연상태와 같은 환경을 가능한 한도내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

### (3) 獵鳥用 사료

꿩, 메추리, 물오리 등은 수렵용과는 육사용(보통 닭에 있어서는 Broiler)으로 나누어 목적에 따라서 사육하게 되는데 메추리는 약 16주, 꿩은 약 14주 정도 기르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거나 수렵용으로 방사할 수 있는 상품가치를 지닌 체중에 도달하게 된다. 참고로 이때까지 이들에 계급여되는 사료의 성분수준을 보면 아래와 같이 양계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야생조류의 영양요구율과 통상사료섭취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단지 개괄적인 면에서 獵鳥로서의 야생조류를 말하려 하였으나 충분한 남득이 가

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음은 서툰 글솜씨  
 임을 자인하며, “인공 수렵장 시대”가 꼭  
 남의 현실일 수 만은 아니란 것을 주장하

고 싶은 심정이다. 축산인의 해야 할 일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리라.

평, 오리, 메추리의 사료성분

종 류	연 령	protein	fat	fibre
평, 오리	0~6주	30%	2.5%	6.5%
수렵장용 평, 오리	6주~방사	19%	2.0%	12.0%
식 용 평, 메추리	0~6주	30%	2.5%	6.5%
식 용 평, 메추리	6주~시장	20%	2.5%	6.5%
종 조 용 평, 메추리	0~6주	30%	2.5%	6.5%
"	6주~1개월	19%	2.0%	12.0%
"	부화4주전	20%	2.5%	7.0%

**信用과 誠實로 모시겠습니다.**

**❖ 축산약품 일절 ❖**

**축산기구**

- 사 료 통 (굽이기)
- 굽 수 기
- 케 이 지 (산란용, 육계용)
- 연속주사기

**\* 질병상담**

양계기술지도 및 판매알선

**장호원, 서울축산약품상사**

주소 :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116  
 TEL : 62                      대 표 : 박송근